

신여성의 사랑과 자유이혼

—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 —

송명희(부경대)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김명순(1896~1951)은 근대 여성작가 1세대로서 동년배인 나혜석이나 김일엽과는 달리 1917년 『청춘』에 이광수의 추천으로 「의심의 소녀」가 선외가작으로 뽑힘으로써 정식의 등단절차를 거쳐 데뷔했다. 뿐만 아니라 생전에 두 권의 창작집-『생명의 과실』(1925), 『애인의 선물』(1928~1929년으로 추정)-을 발간한 그녀는 누구보다도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작가였다. 김명순은 시, 소설, 희곡, 수필의 전 장르에 걸쳐 170여 편을 창작하여 작품의 양적인 면에서도 나혜석과 김일엽을 앞지른다.

하지만 김명순은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과 1914년에 일본에서 겪은 테이트 중 강간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스캔들에 시달리며 불운한 삶을 살아야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의 언론매체와 동료문인들의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에 계속적으로 시달려야만 했다. 『매일신보』는 김명순의 성폭력 사건을 실명으로 보도하였고, 김기진은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양 「김명순·

김원주에 대한 공개장」(『신여성』, 1924.11)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명순을 불순 부정한 혈액을 지닌 ‘히스테리’로, 김원주를 이성 간의 성욕 같은 것을 부끄럽 없이 말하는 부르주아 개인주의자로 인신공격을 하며 그들의 문학마저 매도 했다. 그와 같은 김기진의 폭력적인 태도는 후대의 남성 연구자에 의해 “그릇 된 남성중심주의와 비평가의 우월의식”¹⁾으로 비판된다.

그리고 후대의 여성학자는 김명순이 이용준으로부터 1차 성폭력(데이트 강간)을 당한 테이어 언론과 남성지식인들로부터 2차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규정한다.

김명순을 강간한 이용준에 대한 처벌 없이, 현재까지도 김명순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이었다는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김명순을 탕녀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모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가 강간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김명순은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이고 조선 사회가 가한 2차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이며, 생존자로 거듭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²⁾

서정자는 김명순이 결국 제일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쇄매체, 신문과 잡지의 폭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한다. 즉 매체가 만들어낸 근대국가와 민족,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주의는 고리를 이루어 평생 김명순을 괴롭혔으며, 그것이 대항서사를 낳게 했고, 결국 그녀를 국외로 추방하고 말았다는 것이다.³⁾

1세대 여성문인들에 대한 당대 남성문인들의 적대감과 혐오감은 소설 창작에서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동시대를 살았던 남성문인들은 김명순을 모델로 한 여러 편의 소설들을 발표했다. 염상섭은 『감상과 기대』(『조선문단』, 1925.7)에서 여류문사를 자유연애의 진의를 왜곡하는 타락한 사도로 비난하며, 그의

1)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30,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4, 230면.

2) 김경애,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 『여성과 역사』14, 한국여성사학회, 2011, 73면.

3) 서정자, 「축출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 『세계한국어문학』4,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2~52면.

소설 『제야』(1922), 『해바라기』(1923),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냐』(1923~1924)에서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각각 모델로 삼아 비판했다.⁴⁾ 한편 김동인은 뒤늦게 『김연실전』(1939~1941)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김명순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의 불을 지폈다.⁵⁾ 그로 인해 김명순은 1939년에 아예 한국 땅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처럼 근대 여성문인 1세대가 남성문인들에 의해 날날이 해부되었지만 그것은 고증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⁶⁾이란 논문이 나올 정도로 불확실하고 과장된 소문들을 근거로 한 비난과 가부장주의에 입각한 신여성 혐오증으로 인해 왜곡된 양상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이었던 것은 김명순을 모델로 했다는, 일본작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여등의 배후로서(汝等の背後より)』가 이익상에 의해 번역되어 『매일신보』에 연재(1924.6.24~1924.11.8)된 사실이다. 1923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국내에 번역되기 이전부터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읽히며 소설의 여주인공 권주영이 김명순과 유사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⁷⁾ 이에 따라 김명순은 자신과 권주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급기야 『탄실이와 주영이』를 『조선일보』(1925.6.14~1925.7.15)에 연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작품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중단되는데, 두 작품이 신문지상에 동시에 연재됨으로써 쏟아진 불편한 관심과 입소문을 심리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워져 중단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김명순에 대한 악의적인 스캔들이 넘쳐났던 것과는 달리 김명순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여성작가인 나혜석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그간의 연구들은 불완전한 작품집과⁸⁾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4) 이덕화, 『염상섭의 작품을 통해서 본 신여성에 대한 오인 베커니즘』, 『현대소설연구』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55~76면.

5) 송명희,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모티프』, 『인문사회과학연구』11-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10, 8면.

6) 최명표, 앞의 논문, 221~245면.

7) 신지연, 『1920년대 여성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48, 민족어문학회, 2003.1, 330~332면.

8) 김상배 편, 『탄실 김명순-나는 사랑한다』, 솔피, 1981.

많았다. 그리고 김명순에 대한 개별적 연구⁹⁾보다는 1세대 여성문인을 포괄하여 고찰한 논문¹⁰⁾이나 글쓰기의 방식 또는 근대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¹¹⁾ 그러나 최근 원본 작품집이 발간되고,¹²⁾ 현대어로 번역된 작품집도 발간되었다.¹³⁾ 따라서 김명순을 일본 작가와 비교한 논문¹⁴⁾ 비롯하여 심층적

- 9) 김복순, 『지배와 해방의 문학』,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길사, 1995, 27~77면.
신지연, 위의 논문, 316~354면.
남은혜, 『김명순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10) 강신주, 『김명순(金明淳), 김원주(金元周), 나혜석(羅蕙錫)의 시(詩)』, 『국어교육』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349~367면.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나혜석, 김명순, 김원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50, 한국언어문학회, 2003, 307~328면.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나혜석·김일엽·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67~96면.
박죽심, 『근대 여성 작가의 자기 표현 방식 - 나혜석·김명순·김일엽을 중심으로』, 『어문논총』32, 중앙어문학회, 2004, 321~350면.
유광욱,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김명순·나혜석·김일엽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유정숙, 『한국 근대 여성 작가와 기독교의 연관성 연구: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 11) 이태숙, 『고백체 문학과 여성주체: 김명순(金明淳)을 중심으로』, 『우리말글』26, 우리말글학회, 2002, 309~330면.
신지연, 『1920년대 여성 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총』48, 민족어문학회, 2003, 315~353면.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 『한국언어문학』50, 한국언어문학회, 2003, 307~328면.
조성희, 『서사를 통해 발견되는 자아와 세계의 간극 고찰: 김명순 서사의 치유가 실패한 원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37,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6, 389~422면.
송명희, 앞의 논문, 1~27면.
- 12) 서정자·남은혜,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원본 단편을 모은 송명희, 『김명순작품집』, 지만지, 2008.
- 13) 소설의 현대어 번역에는 송명희의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한국문화사, 2011)이 있으며, 시와 희곡을 현대어로 번역한 책에는 맹문제의 『김명순 전집-시·희곡』(현대문학, 2009)가 있다.
- 14) 명혜영, 『1910-20년대의 키워드 <성욕> - 「선혈」(다무라 도시코)과 「돌아다 볼 때」(김명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113~134면.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35~84면.
신혜수,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에 대한 1920년대 중반 조선 문학 장의 두 가지 반응』, 『(차세대)인문사회연구』7, 한일차세대학술포럼, 2011, 89~104면.
권선영, 『한일 근대여성문학에 나타난 기혼자의 「연애(戀愛)」 고찰: 김명순의 『외로운 사람들』과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포락의 형벌(炮烙の刑)』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56,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159~174면.
이현준, 『한일 근대 이행기, 양국 최초의 여성소설가 비교연구』, 『Comparative Korean

인 작품연구와 재평가가 활발해지고 있다.¹⁵⁾ 하지만 김명순의 개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놓여있다.

본고는 근대 신여성의 연애와 자유이혼이란 주제를 형상화한 『나는 사랑한다』를 엘렌 케이의 연애관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엘렌 케이의 수용에 대해서는 몇몇 논문들이¹⁶⁾ 발표되었지만 김명순과 관련해서는 이덕화의 논문에서 부분적 논의가 있었고, 시와 관련한 논문¹⁷⁾ 한 편 있을 뿐이다. 본고는 김명순의 소설 『나는 사랑한다』의 분석을 통하여 1920년대를 풍미했던 신여성의 연애와 자유이혼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엘렌 케이의 연애관과 김명순의 정신주의적 사랑

‘영어 러브(love)의 번역어인 연애(戀愛)는 일본에서 수입된 말이다. 일본

Studies』19-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251~281면.

- 15) 남은혜,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 : 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99-242면.
김경애,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 김명순의 자아 정체성』, 『한국사상사학』39, 한국사상사학회, 2011, 251~302면.
서정자, 『축출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 『세계한국어문학』4,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3~52면.
김양선, 『여성성, 여성적인 것과 근대소설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52,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60~81면.
- 16) 이화영·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 양상』, 『국제어문』32, 국제어문학회, 2004, 209~234면.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상허학보』13, 상허학회, 2004, 317~362면.
구인모, 『근대 한국여성의 서양인식, 서양체험과 문학: 한일근대문학과 엘렌케이』, 『여성문학연구』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69~94면.
서지영, 『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 1920-30년대 연애의 장』, 『여성문학연구』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39~175면.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79, 중국사학회, 2012, 141~194면.
- 17) 이 논문에서 김명순은 영육이 일치하는 낭만적 사랑을 통해 불합리한 결혼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고 했고, 봉건적 사회제도의 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해방을 부르짖은 김명순은 신여성상 중에 엘렌 케이를 넘어선 사람으로 평가했다. (방정민, 『김명순 시의 신여성상 연구 :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적 측면과 능가한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11-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29~54면.)

에서 근대를 배경으로 재탄생한 연애는 일차적으로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육체적인 섹슈얼리티와 차별화되는 정신적 사랑을 개념화했다. 그리고 근대적 연애는 남녀 간의 사랑을 결혼제도와 결합시킨 점에서 전대의 사랑과도 차이를 보였다.’¹⁸⁾

권보드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20년을 전후해서 일반화된 ‘연애는 사랑 중에서도 남녀 사이의 사랑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철저히 근대적인 현상이다.’¹⁹⁾ 김동식 역시 ‘연애를 개인의 정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욕망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현상이며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로 정의했다.²⁰⁾ 두 논자 모두 연애를 근대 초기의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파악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근대 초기 ‘일본으로 유학 간 젊은 남녀들은 근대 사조의 하나로 자유연애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이들에게 자유연애는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고 근대적 개인의 확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유연애는 근대와 더불어 시작된 근대성의 한 표현이었던 것이다.’²¹⁾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대 형성과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연애는 1920년대의 신여성들에게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신여성들의 연애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명은 엘렌 케이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렌 케이의 수용은 일본을 경유한 것으로, 엘렌 케이의 사상을 한발 앞서 받아들인 일본의 히라스카 라이초와 그녀가 발간한 잡지 『세이토(靑鞆)』(1911~1916)의 신여성운동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김명순은 『세이토』가 일본 신여성운동을 주도하던 1913년에 일본유학을 시작함으로써²²⁾ 당연히 히라스카 라이초와 잡지 『세이토(靑鞆)』의 영향을 받

18) 메이지 시대 서구사상의 유입과 근대국가 및 일부일처제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순결하고 신성한 연애가 담론화되었다. 이와 달리 다이쇼시대에 이르러서는 개인, 자아 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애는 섹슈얼리티를 부정하지 않는 영육일치의 사랑으로 전환되고, 각종 연애 스펙터클과 심중(心中, 情死)이 난무하는 연애 육성기에 이르게 된다.(서지영, 앞의 논문, 140면.)

19) 권보드래, 『“연애”의 현실성과 허구성: 한국 근대 “연애” 개념의 형성』, 『문학/사학/철학』14, 2008, 61~63면.

20) 김동식,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 사회』2001년 봄호, 147면.

21)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22~124면.

22) 김명순은 1913년에 처음 일본에 유학하여 국정여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한 채 1915년

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논문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²³⁾

김명순이 어떤 연애관을 가졌는지 직접적으로 언명한 글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논설을 많이 썼던 나혜석이나 김일엽과는 달리 시와 소설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학적 언어로 형상화하려고 했다.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명순이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규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선문단』에 발표했던 「이상적 연애」(1925.7)란 짧은 글(논설)은 그녀의 연애관을 밝혀 줄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녀는 연애를 “각각 별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융화한 심령끼리 절주해 나가는 최고 조화적 생활상태”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같은 이상을 품고 결합하려는 친화한 상태 또 미급한 동경을 이상적 연애”라고 하였다. 또는 “동지 두 사람이 종교적으로 경건하며 같은 신념으로 공명하는 데 기인해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전진하는 귀일점에서 완성하겠다고 찬미치 않을 수 없”²⁴⁾ 것으로 연애를 극도로 이상화 신비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심령’, ‘이상’, ‘동경’, ‘경건’, ‘신념’ 등과 같은 단어들에 갖고 있는 정신주의적 색채이다. 김명순이 연애에 대해서 가졌던 정신주의적인 성격에 대해 김경일은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서구의 플라토닉 연애”²⁵⁾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즉 김명순은 연애에 대하여 ‘순결하고 신성한 연애가 담론화되었던 메이지 시대의’ 연애관, 즉 육체적인 섹슈얼리티와 차별화되는 정신주의적 연애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정신주의

에 귀국했고, 다시 1917년 7월에 도일하여 1921년 후반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유학 중 당한 성폭력 사건 이후 내내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다가 1930년에 세 번째 도일 후 1936년 귀국하여 잠시 활동을 하다가 1939년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후 가난과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1951년 도쿄의 아오마마 뇌병원에서 사망했다.(송명희, 「지은이에 대하여」,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 363~365면)

23) 『세이토(靑鞵)』가 우리의 신여성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몇몇 논문이 나와 있고, 나혜석이나 김일엽과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논문이 나와 있지만 아직 김명순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4) 김명순, 「이상적 연애」(『조선문단』, 1925.7), 서정자·남은혜, 앞의 책, 654~655면(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었음).

25) 김경일, 앞의 책, 126면.

적 요소를 강조한 그녀의 연애관은 그녀의 소설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염상섭이 말했듯 ‘자유연애의 진의를 왜곡하는 타락한 사도’와는 거리가 매우 먼 여주인공을 김명순은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려냈다.

엘렌 케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억압되어온 여성과 아동의 해방을 부르짖은 스웨덴의 사상가로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적 연애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다.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그녀의 저서 『연애와 결혼』에서 집중적으로 개진되었다. 이 책은 1919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의 연애담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²⁶⁾

그녀의 연애론의 요점은 영육일치의 연애관, 연애와 결혼의 일치론, 자유이혼론, 우생학적 연애관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영육일치의 연애란 독립적 인격을 갖춘 자유로운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²⁷⁾ 그리고 영육일치의 연애에 대한 이상은 자유롭게 연애한 상대와 결혼한다는 자유결혼의 이상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그녀는 어떠한 결혼을 막론하고 거기에 연애가 있으면 도덕적이며,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거기에 연애가 없으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랑만이 결혼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혼의 도덕적 기준은 연애에 두었으나, 연애의 도덕적 기준은 종족의 발전에 두었다. 즉 사회를 위하여 우량한 자녀를 낳는 것이 사랑의 궁극적 목적이자 도덕적 가치 기준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녀의 연애결혼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이혼의 자유로 이어진다. 즉 연애가 결혼의 도덕적 근거이므로, 사랑이 사라졌을 때는 도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이혼의 권리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이혼론의 핵심이다.²⁸⁾

그리고 엘렌 케이는 ‘freedom of love’와 ‘free love’를 구분했는데, 전자는 책임감 남녀평등 행복 사랑에 기반을 둔 영육일치의 자유로운 사랑(연애대상주의)인 반면 후자는 매음과 여러 파트너와의 결합을 포함한 성적 방종(자유연애주의)의 의미로 구분하였다.²⁹⁾ 낭만적 사랑의 신화에 집착한 김명순의

26)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79, 중국사학회, 2012.8, 142~143면.

27) 위의 논문, 149면.

28) 위의 논문, 150~151면.

작품은 엘렌 케이의 개념을 따른다면 ‘freedom of love’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연애이상주의를 반복적으로 표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당대의 언론과 남성문인들은 성적 난교에 해당하는 자유연애주의자로 김명순을 매도하였으며, 그 근거는 앞 장에서 살폈듯이 김명순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사실과 강간 사건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은 『개벽』(1921.2~1921.3)에 실린 노자영의 「여성운동의 제일인자-엘렌 케이」를 통해서 처음 소개되었다.³⁰⁾ 엘렌 케이의 사상은 김일엽의 ‘신정조론’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고,³¹⁾ 김명순의 연애관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덕화는 김명순의 연애관이 엘렌 케이의 연애론에 기초한 것으로, 그 핵심적 요체를 “어떤 결혼이든 거기 연애가 있으면, 그것은 윤리적 결합이며,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정식결혼이라도 연애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덕한 결합일 뿐”³²⁾ 인 것으로 파악했다.

2.2. 「나는 사랑한다」에 재현된 자유이혼론

「나는 사랑한다」(『동아일보』, 1926.8.17.~9.3)의 주인공 박영옥은 신교육을 받고 교사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신여성이다. 그녀는 7년 전 스치듯이 만난 최종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재산가 서병호와 결혼한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최종일을 재회한 그녀는 남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때 여자주인공이 갈망하는 진정한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과 모순관계에 놓이고, 남편과 갈등을 빚는다. 분노한 남편은 그들이 세 들어 살아온 최종일의 산정(山亭)에 불을 지르는데, 결혼의 신의를 저버린 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그 애인을 방화로써 응징하고자 한 것이다. 영옥과 최종일은 산정(山亭)이 불타는데도 오로지 ‘나는 사랑한다’라는 절규를 할 정도로 사랑의 감정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남편이 지른 불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 자유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가

29) 위의 논문, 150면.

30)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상허학보』13, 상허학회, 2004, 320면.

31) 이화영·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 양상」, 『국제어문』32, 국제어문학회, 2004, 218면.

32) 이덕화, 앞의 논문, 30면.

부장제의 징벌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재산가인 남편 서 씨와 영옥이 하필 최종일의 산정(山亭) 뒤체에 세 들어 살게 된 이유는 영옥이 두 달 전에 그곳을 마음에 들어 하여 방 한 칸을 빌려 혼자 와 있다가 아예 뒤채를 빌려 살림까지 하게 된 것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의 결혼의 불안정성에 대한 은유로 해석된다. 즉 영옥과 서 씨와의 결혼에는 결혼의 핵심적 요소인 사랑이 부재하였으므로, 그 집은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셋집으로 설정한 것이다.

영옥이 7년 전 고학생 시절에 우연히 만나 월사금의 도움을 받은 이후 늘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흠모해온 최종일을 재회하자마자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며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은 남편과의 사이에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에는 사랑에 기반한 언어적 감정적 육체적 상호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들 부부 사이에는 이와 같은 사랑이 결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옥과 서병호의 결혼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결혼이다. 그런데도 영옥과 남편 서병호와의 사이는 무언가 불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묵은 밤나무 그들이 그 창가에 햇빛을 비취지 않는 삼간 방 속에는 그 주인 서병호가 무엇을 지키는 듯이 아랫목 보료 위에 앉아 있고, 그 안에 영옥이가 윗목 책상 앞에 앉아서 돌부처가 된 듯이 두껍다란 책을 보고 앉았다.

-아내의 독서하는 모양을 독한 눈빛으로 꿰뚫어지도록 바라보던 병호는 좀 노한 음성으로

“여보, 당신 아침 또 안 잠수쇼. 아이고 저 얼굴색 봐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새파랗게 죽는 것 같구려. 제발 하루바니 할께 그 책 좀 있다가 보아요.”³³⁾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남편은 노한 음성이지만 아내에게 식사를 하라고 사정하는 반면,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책을 읽으며 남편에게 공연한 동정을 하지 말라는 듯이 편잔을 보낸다. 즉 두 사람은 식사도 같이하지 않으며, 전날 밤 음악회에도 같이 가지 않았음이 밝혀진다. 결혼 8개월에 접어든 신혼부부라고는 볼 수 없는 냉랭한 모습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감정의 소통과 대화가

33) 송명희 편역,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 319~320면.

부재하는, 다시 말해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관계이며, 근대에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서 고안된 명칭”³⁴⁾이라 할 때에 이들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반한 지속적 의사소통이 부재하는, 다시 말해 연애가 결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부재하는 이유는 애당초 두 사람의 결혼이 연애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교사였던 영옥이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교장의 더러운 음모를 입게 되는 곤경에 빠지게 되자 서 씨가 이를 금전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8개월 전에 결혼하게 된 것이다. 즉 두 사람의 결혼에는 사랑의 순수성이 전제되지 않았고 대신 돈이 매개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영옥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왔으며, 결혼과정에서 돈이 들어간 사실을 늘 아까워하는 남편에 대해 영옥은 “더러운 것을 보는 듯이 눈살을 찡그리”는 강한 혐오감을 나타낸다.

“이 덕에 또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서 선생님-어젯밤에 영옥이가 저 혼자만 음악회에 갔었지요? 그 일이 지금 불화한 원인이 아닙니까? 호호.”

하고 비웃는지 말하였다. 서 씨는 아주 승세한 듯이

“원 그런 일이 어디요 그 비 오는데 음악회에 간다고 나더러는 가잔 말도 없이 자기 혼자 갔다 오는구려. 그게 남의 아내 된 버릇입니까.”

하고 지금에야 꼴을 내본다는 듯이 하였다.

“그런 아내는 쫓아내시지요.”

하고 우습지고 얇게 먼저 말하던 이가 대답하였다. 서 씨는 통명스럽게

“그도 내 돈 없이한 것이 아까워서 못 하겠쎬다.”

하고 그 고향 어조로 본심(本心)을 토하였다.

“영옥이는 그렇게 당신에게 놓여나지 못하도록 당신의 빚을 졌습니까. 호호.”

하고 그녀는 또 말하였다. 그리고 용서치 못하겠다는 듯이 입을 꼭 다물었다. 영옥이는 더러운 것을 보는 듯이 눈살을 찡그리었다. 다른 이들은 눈치로 만류하려 하였다. 이때에 바깥어멈이 건넌방에 밥상을 차려놓고 주인을 부르러 갔다.³⁵⁾

34)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18-1, 민족문학사학회, 2001, 300면.

즉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은 엘렌 케이에 의하면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해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합법성의 여부가 아니라 사랑의 순수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이다. 한마디로 영옥과 서 씨의 합법적인 결혼에는 사랑의 순수성이 훼손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혼 이후 영옥은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은 “독한 청혼에 속아서 몸을 팔고 그 종이 된” 것으로 친구 순희에 의해 평가되는가 하면, 행랑 할아범에 의해서는 “평생 재미없이 사는” 부부로 관찰된다. 돈에 팔려 사랑 없는 결혼을 한 영옥의 얼굴은 “지난날 백모란 같았던 화려한 얼굴이 초초한 심사를 간신히 낮빛에만 울리지 않은 그는 불쌍한 정을 자아내도록 여우고 수척한”³⁶⁾ 그림자가 드리운다.

반면 최종일을 다시 만났을 때, 영옥은 “나는 할 수 있을 대로 그이를 모르는 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 밑으로 솟아오르는 내 순정(純情)이 그이를 향하고 넘쳐흐르는 듯하다”³⁷⁾와 같이 솟구쳐 오르는 순수한 연애감정에 충실하게 사로잡힌다. 최종일 역시 영옥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부터도 “물고기 같이 생기 찬 처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다가 영옥이 7년 전 남대문 역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임을 알아보고 “좌우 손을 맞잡고 기쁨과 두려움이 서로 어우러지는 듯이 손을 비비”는가 하면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습니까.”라고 위로한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이름도 모르던 처녀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 들려야 할 내 영원한 동경입니다”³⁸⁾라고 사랑을 고백한다.

“낭만적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적 끌림으로서의 감정적 실체를 바탕으로 한 ‘친밀성’으로부터 출발한다.”³⁹⁾ 그런데 영옥은 정서적 끌림과 친밀성을 느끼는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결혼제도 밖의 남성 최종일이다. 최종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영옥은 이혼을

35) 송명희 편역, 앞의 책, 321~322면.

36) 위의 책, 320면.

37) 위의 책, 325면.

38) 위의 책, 330면.

39) 박은희, 『낭만적 사랑과 프로파간다』, 『인문과학연구』36,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173면.

강력히 요구한다. 엘렌 케이이 주장했듯이 결혼의 도덕적 근거인 사랑이 부재하므로 그녀에게 이혼 요구는 필연적인 것이다.

엘렌 케이의 연애편은 「나는 사랑한다」에서 “너는 서 씨에게서 나와야 한다.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매음이 아니냐”라고 친구 순희의 입을 통해 주장된다. 그야말로 사랑의 유무가 결혼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의 도덕적 근거가 되는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남편과는 헤어지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 속의 영옥처럼 근대 초기 신여성들은 ‘마음에 없는 결혼, 돈에 팔려 혹은 권력이나 인습의 제물이 된 결혼, 모든 종류의 마음에 없는 결혼, 즉 사랑 없는 결혼에 이혼으로 대항하였다.’⁴⁰⁾

이 작품에서 영옥이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최종일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늘 흠모해온 첫사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육체적 섹슈얼리티와는 분리된 순수한 정신적 사랑의 관계이다. 김명순의 소설에서 연애는 육체적인 섹슈얼리티와는 차별화된 순수한 정신적 사랑으로서 이것이 결혼제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띠게 된다.

김명순 소설의 여주인공들이 감정적 소통을 느끼는 남성들은 이미 결혼제도 속에 편입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연애는 한 번도 자유결혼의 이상과 연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1924)의 여주인공은 상사병으로 죽게 되며, 「돌아다볼 때」(1925)의 여주인공은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고, 「꿈 묻는 날 밤」(1925)에서는 사랑을 포기하고 문학에 정진할 결심을 세운다. 즉 주인공들은 자신의 사랑의 욕망을 억압하고,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의 결혼 규범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유부녀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이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김명순의 소설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는 데 늘 장애의 요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에서는 이혼이라는 대안을 통해서 그 장애를 적극적으로 뛰어넘고자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연결되지 않는 비극적 사랑을 반복적으로 그려온 김명

40) 신영숙,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이혼 문제」, 『한국학보』12-4(45), 일지사. 1986, 215~216면.

순의 소설에서 순수한 사랑에 대한 작가의 간절한 소망 또는 작가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엿볼 수 있다. 기생의 딸이라고 비난받아온 김명순은 누구보다도 정숙한 여자가 되고자 간절히 열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불순한 혈통 뿐만 아니라 타락한 여성이라는 낙인까지 덧씌웠다. 그녀는 순수한 관계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관계 외적 요소들이 벗어난 지점에서 관계 내적인 순수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설이라는 허구적 양식을 통해서라도 그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욕망을 상상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순수하게 인격적·감정적 유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사랑은 가부장적 권력이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뛰어넘는다.

기든스(Anthony Giddens)의 개념에 따르면 김명순이 이상화한 사랑은 관계 외적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계 그 자체의 내적인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지속되는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의 사랑이다. 기든스에 의하면 사랑과 섹슈얼리티는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향유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사랑과 섹슈얼리티는 점점 더 순수한 관계를 통해 연결되고 있으며, 결혼까지도 더 순수한 관계의 형태로 되어 간다. 두 사람의 관계 외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감정적·인격적 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열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개인 간의 친밀성과 순수한 감정에 기초한 자아성찰적 사랑을 모든 외적 관계보다 기든스는 우선시했다.⁴¹⁾ 김명순이 그녀의 소설을 통해서 꿈꾸는 사랑은 기든스가 말한 관계 외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감정적·인격적 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관계이며, 개인 간의 친밀성과 순수한 감정에 기초한 자아성찰적 사랑의 모습이다.

근대 초 자유연애는 전통적인 결혼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즉 자유연애혼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⁴²⁾ 그 자신이 이혼을 실천한 ‘이광수 역시 부모의 결정에 의한 조혼의 폐단을 비판하고, 두 남녀의 자유연애를 통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형태의 결혼이라는 자유연

41) 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103~104면.

42) 이배용, 『일제 시기 신여성의 역사적 성격』, 문육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34면.

이혼의 이상⁴³⁾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명순의 소설은 자유결혼과 연결되는 자유연애의 이상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복해서 다루며, 형식적 결혼이나 가족제도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감정적 인격적 유대관계 그 자체의 순수성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이광수나 당대의 근대적 지식인들이 생각한 근대적 연애와 결혼의 이상을 뛰어넘는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탈근대적 성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나는 사랑한다」는 사랑 없는 결혼에 이혼으로 대항하는 신여성의 적극적 모습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김명순의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된다. 제목인 ‘나는 사랑한다’에서 ‘나’는 근대적 인간 주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주체성의 확인은 다음 아님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김명순의 소설에서 연애는 근대적 인간 주체의 선언, 바로 근대성 구현의 일환으로 실천되었으나 동시에 근대를 뛰어넘는 탈근대성을 보여준다.

엘렌 케이와 김명순의 차이를 검토해보면, 첫째, 엘렌 케이와 영육일치의 사랑을 말한 데 반해 김명순은 남녀 개인 간의 정신주의적인 순수한 사랑 그 자체를 강조하였다. 둘째, 엘렌 케이와 연애의 이상을 자유결혼의 이상과 결부시킨 데 반해 김명순은 결혼제도와 무관하게 연애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셋째, 엘렌 케이와 연애의 궁극적 목적을 종족의 발전이라는 집단적인 데 목표를 둔 것과는 달리 김명순은 결코 종족의 발전에 연애의 목표를 두지 않았다. 즉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비단 근대적 개인의 인격적 독립,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근대적 시민사상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형성에 이론적으로 복무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모성론으로 발전된다.’⁴⁴⁾ 하지만 김명순은 개인의 인격적 독립과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연애를 강조하였으며, 이 점에서 엘렌 케이와 말한 국민국가 형성이나 모성론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별성을 나타냈다.

살펴보았듯이 근대 초기 우리나라에 형성된 신여성의 연애와 이혼에 관한

43) 송명희, 『이광수의 문학비평연구—민족주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85, 54~55면.

44) 구인모,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76면.

진보적 사상의 맥락 속에서 김명순의『나는 사랑한다』와 같은 작품은 나올 수 있었다. 연애를 전제로 한 자유결혼은 당시 신여성들의 이상이였다. 하지만 연애를 기초로 한 자유결혼은 봉건적 가족제도와 부모의 의사에 의한 조혼 결정으로 방해받곤 했다. 즉 연애는 결혼과 연결될 때에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데, 김명순의 소설에서 연애는 자유결혼의 이상과 한 번도 연결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주인공이 연애감정을 느끼는 남성들은 조혼으로 이미 결혼제도에 편입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대 초기 지식인 여성들이 처했던 사랑과 결혼의 현실적 딜레마였다. 그들이 사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소통할 만한 남성들은 거의 모두 조혼의 풍습으로 인해 이미 결혼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연애가 결혼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제2부인이나 여학생 첩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3. 결론

본고는 근대 신여성의 연애와 자유이혼이란 주제를 형상화한 『나는 사랑한다』(1926)를 엘렌 케이의 연애관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나는 사랑한다』의 여주인공 영옥은 교사의 전력을 가진 신여성이다. 그녀는 결혼 전에 스치듯이 만난 최종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서 씨와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7년 후 유학에서 돌아온 최종일을 재회하게 되자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매음”이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그녀 부부의 결혼은 감정이 소통되는 낭만적 연애가 전제되는 대신 돈이 매개로 작용했다. 즉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이다. 엘렌 케이에 의하면 어떠한 결혼을 막론하고 거기에 연애가 있으면 도덕적이고,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거기에 연애가 없으면 그 결혼은 부도덕하다. 즉 사랑만이 결혼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김명순은 『나는 사랑한다』에서 사랑 없는 결혼의 대안으로서 이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성취하려는 신여성을 그려냈다. 이러한 결말은 김명순의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변화이다.

즉 김명순 소설에서 미혼의 여주인공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은 모두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늘 억압되고 좌절된 모습으로 그려졌

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1924)의 여주인공은 상사병으로 죽게 되며, 『돌아다볼 때』(1925)의 여주인공은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고, 『꿈 묻는 날 밤』(1925)에서는 사랑을 포기하고 문학에 정진할 결심을 세운다. 즉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며 일부일처제의 결혼규범에 순응하는 여주인공을 그려 왔다.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1926)에서는 유부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랑 없는 결혼의 대안으로서 이혼을 제시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김명순은 엘렌 케이가 말한 영육 일치의 연애 대신 감정이 소통되는 정신주의적 연애를 주장하였으며, 결혼제도와 연결되지 않는 연애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연애의 궁극적 목적을 종족의 발전이라는 집단적인 대목표를 엘렌 케이와는 달리 김명순은 종족의 발전에 연애의 목표를 두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격적 독립과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연애를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엘렌 케이가 말한 국민국가 형성이나 모성론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별성을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은 유교적 가부장제하에서 삼종지도의 아비투스(Habitus)에 구속되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되는, 즉 어머니·아내·딸이라는 예속적 정체성만을 부여받은 존재였다. 하지만 근대는 주체로서의 여성이 발견되는 시기로서, 이것은 근대적 교육과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적 여성해방론이 여성에게 불러일으킨 변화였다. 여성에게 근대는 가부장적인 예속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주체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각성하는 시기였다.

서구에서 참정권 운동과 같은 공적 영역의 여성해방이 치열했던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적 영역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여성해방론이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김명순이나 나혜석과 같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유연애나 남녀평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이슈를 민족이나 계급과 같은 공공의 쟁점보다 우선시했다는 평가’⁴⁵⁾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서구와 같은 참정권의 요구나 법적 제도적 평등을 요구할 만한 시민 사회적 토대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조선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체제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성해방이 전

45) 김경일, 앞의 책, 71면.

제되지 않은 채 진정한 성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본고가 검토한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는 자유이혼이란 주제를 통해 여성의 자아해방을 추구한 작품으로서, 20C 초반 우리의 여성작가가 시대의 첨단에서 치열하게 추구했던 여성해방의 일단을 집작하게 해준다.

〈참고문헌〉

1. 자료

- 서정자·남은혜,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송명희 편역,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 한국문화사, 2011.
송명희 편, 『김명순 작품집』, 지만지, 2008.
맹문재, 『김명순 전집-시·희곡』, 현대문학, 2009.

2. 논저

- 강신주, 「김명순(金明淳), 김원주(金元周), 나혜석(羅蕙錫)의 시(詩)」, 『국어교육』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349~367면.
곽은희, 「낭만적 사랑과 프로파간다」, 『인문과학연구』36,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167~188면.
구인모,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69~94면.
권보드래, 「"연애"의 현실성과 허구성: 한국 근대 "연애" 개념의 형성」, 『문학/사학/철학』14, 2008, 61~83면.
권선영, 「한일 근대여성문학에 나타난 기혼자의 '연애(戀愛)' 고찰: 김명순의 『외로운 사람들』과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포락의 형벌(炮烙の刑)』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56,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159~174면.
김경애,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 『여성과 역사』14, 한국여성사학회, 2011, 31~82면.
_____,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 김명순의 자아 정체성」, 『한국사상사학』39, 한국사상사학회, 2011, 251~302면.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18-1, 민족문화사학회, 2001, 299~327면.
김동식,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 사회』53호(2001년 봄호), 문학과지

- 성사, 2001, 130~166면.
-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 나혜석·김일엽·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67~96면.
- 김상배, 편, 『탄실 김명순-나는 사랑한다』, 솔피, 1981.
- 김양선, 「여성성, 여성적인 것과 근대소설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52,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60~81면.
- 남은혜, 「김명순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_____,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 : 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99~242면.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 박죽심, 「근대 여성 작가의 자기 표현 방식 - 나혜석·김명순·김일엽을 중심으로」, 『어문논총』32, 중앙어문학회, 2004, 321~350면.
-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35~84면.
- 방정민, 「김명순 시의 신여성상 연구 :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적 측면과 능가한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11-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29~54면.
- 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현실의식-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39, 이화사학회, 2009, 1~28면.
- 서정자, 「출출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 『세계한국어문학』4,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3~52면.
- 서지영, 「계약과 실험」, 『여성문학연구』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39~175면.
- 손지연, 「근대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논의의 지형」, 『여성문학연구』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41~270면.
- _____,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과 『세이토』」, 『비교문화연구』27,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2, 291~317면.
- 송명희,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모티프」, 『인문사회과학연구』11-2, 부경

- 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1~27면.
- _____, 『이광수의 문학비평연구-민족주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85.8.
- 신남주, 『조선 신여성의 『세이토(靑鞞)』수용의 영향과 성격 : 『신여자』의 발간과 ‘신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20, 한국여성교양학회, 2011, 129~149면.
- 신영숙,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이혼 문제』, 『한국학보』12-4(45), 일지사, 1986, 182~217면.
- 신지연, 『1920년대 여성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48, 민족어문학회, 2003, 316~354면
- 신혜수,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에 대한 1920년대 중반 조선 문학장의 두 가지 반응』, 『(차세대)인문사회연구』7, 한일차세대학술포럼, 2011, 89~104면.
-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나혜석, 김명순, 김원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50, 한국언어문학회, 2003, 307~328면.
- 유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 김명순·나혜석·김일엽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8.
-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79, 중국사학회, 2012, 141~194면.
- 이덕화, 『염상섭의 작품을 통해서 본 신여성에 대한 오인 메커니즘』, 『현대소설연구』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55~76면.
- 이지숙, 『『세이토』에 나타난 일본 근대여성들의 글쓰기 양상』, 『일본문화학보』37,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 243~255면.
- _____, 『1910년대 일본 신여성문학-『세이토』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4-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157~175면.
- 이진우,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푸른숲, 2000.
- 이태숙, 『고백체 문학과 여성주체 : 김명순(金明淳)을 중심으로』, 『우리말글』26, 우리말글학회, 2002, 309~330면.
- 이현준, 『한일 근대 이행기, 양국 최초의 여성소설가 비교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19-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251~281면.

- 이화영·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 양상」, 『국제어문』32, 국제어문학회, 2004, 209~234면.
- 전요섭, 「중년기 외도의 심리분석과 목회상담적 지원」, 『한국개혁신학논문집』12-1, 2002, 339~367면.
- 조성희, 「서사를 통해 발견되는 자아와 세계의 간극 고찰 : 김명순 서사의 치유가 실패한 원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37,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6, 389~422면.
-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30,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4, 221~245면
-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길사, 1995.
- 현택수, 『현대인의 사랑과 성』, 동문선, 2004.
-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상허학보』13, 상허학회, 2004, 317~362면.
- 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 R.베이커·F. 엘리스톤 편, 이일환 역, 『철학과 성』, 홍성사, 1982.

【국문초록】

본고는 1920년대 신여성의 연애와 자유이혼이란 주제를 형상화한 「나는 사랑한다」(1926)를 엘렌 케이의 연애관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여주인공 영옥은 교사의 전력을 가진 신여성이다. 그녀는 낭만적 사랑, 즉 연애가 전제되지 않고 돈이 매개된 순수하지 않은 결혼을 벗어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최종일과 진실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엘렌 케이에 의하면 어떠한 결혼을 막론하고 거기에 연애가 있으면 도덕적이며,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거기에 연애가 없으면 그 결혼은 부도덕하다. 즉 사랑만이 결혼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김명순은 연애감정이 부재하는 결혼생활은 무의미하므로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엘렌 케이의 자유이혼론을 수용함으로써 「나는 사랑한다」에서 사랑 없는 결혼의 대안으로서 이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성취하려는 적극적 신여성을 그려냈다. 이러한 결말은 김명순의 이전 소설들과는 차별화되는 변화이다.

즉 김명순은 감정이 소통되는 사랑과 제도로서의 결혼 사이의 갈등을 반복해서 그려왔지만 미혼의 여주인공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은 모두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연애는 자유결혼의 이상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에서는 유부녀를 등장시켜 사랑 없는 결혼의 대안으로서 이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본고가 검토한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는 자유이혼이란 주제를 통해 여성의 자아해방을 추구한 작품으로서, 20C 초반 우리의 여성작가가 시대의 첨단에서 치열하게 추구했던 여성해방의 일단을 짐작하게 해준다.

주제어 : 김명순, 나는 사랑한다, 성의 자유, 신여성, 근대여성작가, 엘렌 케이, 자유이혼

【Abstracts】

The New Woman's of Love and Freedom of Divorce

— Focus on Kim Myeong-sun's 「I Love」—

Song, myunghee

In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rough 「I Love」 of Kim Myeong-sun a modern Korean female writer, the new woman's freedom of love and freedom of divorce

「I Love」(1926) have a common point that a new woman who insists a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her bodies out of an exclusive ideology of marriage has a trouble with her husband. An inquiry of extramarital sexuality is an old issue, but it has been led by men traditionally.

Yeong-ok, a heroine of 「I Love」, married other man although she felt love from Choi Jong-il who went to study abroad before marriage. By the way, after 7 years, as she met Choi Jong-il again, she asked for a divorce with "A married life without love is prostitution". At the work's ending, because of a fire estimated by the husband's arson, Yeong-ok and Choi Jong-il only cried 'I love you' while a tenant was burning. In this work, the fire symbolizes the husband's revenge. Kim Myeong-sun has expressed subjects that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love than to marriage. 「I Love」 shows this consciousness the most remarkably.

Key words : Kim Myeong-sun, 『I Love』, freedom of sexuality, a new woman, a modern female writer, Ellen Karolina Sofia Key, freedom of divorce

이 논문은 2014년 1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